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The Library Anxiety of Information Users in their 20s in East-Asia

박 미 향 (Mihyang Park)*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성인층의 평생학습 확산을 대비한 국가간 도서관 협력의제를 고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인식과 불안을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상황적 맥락(선호정보원, 이용빈도, 학력, 성별)에 따른 도서관이용의 요인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청년층 이용자의 선호정보원과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불안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중국의 정보이용자층이 다른 나라 이용자층에 비해 도서관이용시 각 요소에 대한 불안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정보이용자들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불안요소가 다른 나라 청년층 이용자에 비해 낮은 분포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수용 및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 장소 모색 등 성인층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도서관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library awareness and anxiety among people in their 20s living in East Asia. The objective is to develop the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agenda for life-long education proliferation. User groups in Korea, China,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library awareness based on the situational contexts such as preferred resources, use frequency, educational level, and gender.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ed the correlation between library anxiety and use patterns such as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and frequency of use. Specifically, the user group in China has the highest level of library anxiety with every factor. Also, the Korean user group was measured to have the lowest level of library anxiety in terms of digital information factor.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esen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resolving library anxiety such as embracing new information need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change and suggesting a new space policy for libraries.

키워드: 도서관인식, 도서관불안, 정보행태, 청년세대, 정보이용자,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성인이용자, 도서관경험

Library Awareness, Library Anxiety, K-LAS, Information Behavior, Young Generation, Information Users, East-Asia, Korea, China, Japan, Adult User, Library Experience

* 국회도서관 전자정보정책과장,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npoya@nanet.go.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253-272,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3.253]

1. 서론

전 세계 유례없이 펼쳐지는 인간의 긴 생애주기 전망속에 성인층의 다양한 단계의 삶과 평생 교육 차원의 단계별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성장환경 등 사회·경제적 위기환경 속에 아시아권의 세계사적 기여와 활동가능성에 대한 주목, 이에 따른 아시아지역 협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화기반 시설로서 개인의 발전과 생의 의미추구에 있어 필수적인 사회적 기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한 시민들의 정보활용 및 생산능력의 향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전지구적 관점에서도 도서관을 통한 시민교육과 교양강화는 글로벌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성숙한 지구촌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사회적 활용은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녹아들어야 하며, 이에 특별히 청년층은 장기적 전망에서 성인기의 시작단계로서 이 시기에 정립한 도서관에 대한 태도와 인식, 이용습관은 전 생애를 거쳐 한 인간의 정보세계와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된다.

국경을 초월하여 청년세대의 포괄적 도서관 인식과 그들이 느끼는 도서관이용의 장애요소를 고찰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보환경을 기반으로 성인기 초기단계부터 개인이 생애계획과 관심분야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slowly but surely)' 발전시킨다면,

이를 통해 개인적 행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을 사회적 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고 이는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행복지수가 국가의 의미있는 발전을 측정하는데 주요 지표가 되는 현실(OECD 2015)¹⁾을 반영할 때, 국가는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진작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제도제안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 저변의 교육문화기반시설을 개선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의 평생학습 환경제고에 관한 도서관 협력의제를 고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20대 정보이용자의 도서관인식과 불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청년세대의 도서관인식을 살펴보고, 국가간 공통점과 이용자들의 인식에 있어 차이점, 그리고 관련된 사회문화적 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해당 지역의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운영 및 서비스정책 개선과 국가간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인구학적 집단으로서의 청년세대

인구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은 저출산·고령화현상이다. 고령화문제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50년 전에 비해 기대 수명이 거의 절반이 늘었고, 저출산문제는 한국의 경우

1) OECE가 2015년에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내 11개 세부지표에서 한국의 행복지표(Life satisfaction: 'how happy you are')는 OECD와 G20이 포함된 39개국 중 전체 27위를 차지했다.

더욱 심각하여 2014년 말 현재 0~9세의 비율이 40대(40~49세)에 비해 절반정도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14). 특히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현상이 아니어서, 통계적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인구 이상이 이미 기대 수명 70세 이상 80세, 90세 나아가 100세까지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박형준 2014). 이제 한 사람이 거의 한 세기를 사는 시대가 열렸고, 이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현상이며, 성인층의 단계적 확장과 함께 평생학습의 사회적 필요성도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평생교육서비스 대상은 유아기(취학전 5-6세), 아동기(초등학교에 취학해 있는 6-11세 사이), 청소년기(중등학교 취학기간이 주종인 10대), 성인전기(성인기의 초반 2-30대), 성인중기(성인기의 중반기 4-50대), 성인후기(활동이 축소되는 성인기의 후반기 약 60세 이후)로 생애단계에 따라 구분된다(최운실 외 2003). 더불어 생애전반에 걸친 인간의 성장에 대한 고찰을 할 때 연대기적 나이 기준의 한계를 인지하고, 사회적 역할과 생명문화적(bio-cultural) 능력에 기초해 전체 인생주기를 4단계로 나누기도 한다(Laslett 1991; Rimmer 2007). 이에 성인층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학교 밖의 교육·문화기반시설들을 활용하여 자발적 평생학습을 도모하게 되었고, 도서관은 제도권 밖의 다양한 학습과 교육을 장기적으로 하게 될 성인층을 주요한 정보이용자군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지식정보시대가 도래하면서 성인층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겼다. 1980년대 PC의 대중화,

1990년대 휴대폰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혁명시기를 겪은 세대를 일컬어, 미국 교육학자 Prensky(2001)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는 용어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함께 자라온 세대를, 태어나면서 모국어처럼 배우기 시작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디지털 기술을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체화한 세대로 설명했다. 관련하여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적 삶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Net의 약자를 활용하여 N세대라고도 칭한다(Tapscott 1998). 그들의 주요 특징은 콘텐츠의 수용자이기보다 창조자로서, 기술활용에 능하고(tech savvy), 멀티태스킹한 태도에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에 있어 협업과 관계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이 세대는 정보탐색 활동의 장으로서 도서관을 가치절하하지는 않지만, 연구조사가 반드시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Mi and Nesta 2006).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낳은 2세를 일컫는 용어로서, Y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이들은 2000년 이후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세대로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불린다. 개인주의, 개방성 등의 특징을 가진 이 젊은 세대들은 전자스크린(TV, 영화, 비디오게임, 컴퓨터모니터 등) 앞에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전자정보원(electric resources)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한다. 이 집단은 이전 세대²⁾에 비해 상당한 여가시간을 독서

2) 베이비붐세대(1946-1964)와 X세대(1965-1976)는 후천적으로 디지털기술에 적응해 간 디지털네이티브 이전 세대로 디지털이민자(Digital Immigrants)로 칭하여 구분하기도 함(Tapscott 1998).

보다는 수동적으로 이미지나 인터넷정보를 흡수하는데 보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나 다양한 인지적 능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eiler 2004). 더불어 이 세대는 사람(지인)이나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특정 분야 전문가)을 주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자신의 정보검색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성도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은 정보추구에 있어서 시간에 민감하고, 정보활용에 있어 주된 장애를 정보의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 등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보과잉(information glut)이나 신뢰성이 의심이 드는 정보, 즉 정보의 타당성(questionable validity) 문제에서 느낀다는 것이다(Young and Seggern 2001).

정보탐색과 연구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세대, 도서관을 낮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시간과 노력투여정도를 비용측면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용자가 바로 N세대 이후의 정보이용자집단이고 이들의 인구학적 비중과 경향적 특수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청년 이용자집단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도서관이라는 교육문화 및 여가인프라가 평생학습시대 시민의 일상속으로 보다 밀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확장된 생애주기속에 놓인 성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인생의 선택과 활동가능성에 대한 정보획득과 탐색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도서관이 전체 시민사회를 위한 생활적 교육·문화·정보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성인층의 도서관불안

이용자의 정서적 측면에 관한 학문적 접근으로는 Mellon(1986)의 질적 연구조사로 시작된 도서관 불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Mellon은 6,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학생들 대부분이 다양한 차원의 도서관불안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근본적인 도서관인식을 검증하였다. 그 후 도서관불안요소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수준이 높을 경우, 도서관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정보탐색 능력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후 정보이용에 있어 도서관을 배제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장애요인 탐색은 개인들의 도서관과 관련된 감정상태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이용자 연구분야가 되었다.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불안요소에 대한 측정도구개발과 이용자그룹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측정도구개발에 관한 연구는 Bostick(1992)에 의해 개발된 도서관불안측정도구인 LAS(Library Anxiety Scale)를 시작으로 Van Kampen(2004)이 M-LAS(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를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박현영, 남태우 2006; 박주범, 정동열 2010)에 대한 연구 요소가 추가되어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Mellon의 연구에 뒤이어 이용자집단에 대한 연구로서 대학원 및 대학생(Jiao and Onwuebuozie 1998; 남태우, 박현영 2006; 오의경 2011; 정종기 2014), 유학생

(Jiao and Onwuebuozie 2001; 남영준 등 2010), 정보소외계층(장보성 등 2010; 오선혜, 이성숙 2012)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도서관이용자가 도서관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자의 다른 정보환경맥락에 따라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하는데 있어 도서관불안요소는 심각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의미형성관점에 있어서 이용자의 정보탐색은 정보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질 문던지기에서 시작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차이를 인지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이용자의 감정상태(emotion)는 차이가 있는 상황을 인식하는 인지적인 측면만큼 중요하데, 탐색자는 정보추구에 있어 자신의 불확실한 상황만큼이나 내부적 불안감(anxiety)을 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진다(Case 2012). 이에 따라 이용자의 초기 도서관 공간 및 정보자원 이용의 불안감을 도서관의 각 요소들의 개선을 통해 감소시켜주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의 관건이라 하겠다. 더불어 Mellon(1986)의 설명대로 도서관 불안의 원인이 도서관의 크기, 자료의 소재에 관한 지식부족, 문헌조사의 시작과 전개방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되어 있다면 도서관에서는 해당 요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을 초기에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노령화사회에는 특히 긴 생애주기 전망속에서 개인은 다양한 삶의 위기와 기회, 학습과 여가의 경험적 쉼을 만들어가며 살아간다. 성인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 구분 이외에도 취업준비

생, 연구자 및 작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이직 준비자, 제2의 인생설계 중인 은퇴예정자 및 은퇴자 등 다양한 집단과 그들 생활의 맥락적 상황이 있다. 단계별 수준에서 성인층 정보이용자들은 생의 불확실성에 대응 또는 도전하기 위해 적합한 정보를 찾고 있으며, 이에 보다 섬세하고 신뢰성있는 공공정보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일상에서의 정보추구³⁾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에 대한 학문적 관심(Stebbins, R.A 2001, 2009; Mentis 2007; Case 2002; Aspray and Hayers 2011)이 증가되면서 성인층들의 정보기대와 요구 확대에 따른 관련 연구들도 보다 세분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기관이 개인의 정보세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세분화된 정보요구수준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개인들의 정보요구와 활용이 일상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환경속에서 가치있는 정보수집과 서비스 제공이 사회적 의무로 규정된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정보이용이 위축 된다는 사실은 도서관의 분명한 딜레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을 통해 원래의 정보요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도서관 불만족요소가 높아진다면, 도서관의 불안요소는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위협하

3) 일상에서의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는 ELIS(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로 약칭되어 사용된다(Case 2012).

는 핵심적 서비스개선 이슈라 할 수 있겠다.

3. 연구방법

3.1 연구질문과 측정도구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대표 국가의 20대 정보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는가?, 그리고 도서관인식에 있어서 국가간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필자는 ‘도서관 환경이 다른 여건에서 청년층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은 차이가 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세대 공감과 경험공유를 통해 국가간 차이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도서관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연구의 기본전제로 삼았다. 이 전제를 기초로 5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며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동아시아 청년이용자층의 도서관 인식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국가별로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에는 차이가 있다.
2. 정보원 선호에 따라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난다.
3. 도서관 이용빈도가 따라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난다.
4. 학력수준에 따라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난다.
5. 남성과 여성의 도서관불안은 차이가 있다.

위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한국형 도서관 불안척도인 K-LAS의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청년이용자층의 도서관 인식을 요인별로 탐구하여 도서관불안과 태도 등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이에 Bolstick(1992)이 개발한 도서관불안 척도인 LAS와 Van Kampen의 M-LAS를 근거를 기반으로 도서관 이용후기보고서분석, 3차 설문조사와 재측정법을 이용하여 문항을 척도화한 박현영, 남태우(2006)의 K-LAS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급변하는 IT환경을 반영하여 디지털요소를 도서관불안으로 추가하였고, 총 6요소 40문항 속에 물리적, 환경적 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요소, 과제 및 연구요소, 디지털정보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K-LAS 도서관불안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도서관불안이 높은 순으로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일부 문항의 경우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에 있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 행태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학력, 성별, 이용하는 도서관 종류와 이용빈도 그리고 선호하는 정보원 등의 총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45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3.2 연구대상과 데이터수집

본 연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 도시 지역(서울과 인천; 북경과 상해; 도쿄와 교토)에 위치한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20대 청년층이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기반으로 한 국가간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 3개년에 걸쳐 각각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진행시기는 1차 조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2차는 2013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마지막 3차는 2014년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0월 31일에 종료되었다. 설문은 직접 배포와 온라인설문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참여자는 한국 20대 청년층 280명, 중국 청년층 90명, 일본 청년층 70명이었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20건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20건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참고로 나라별 청년층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전 요소와 문항의 용어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특별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설문조사를 해당 국가 국적을 가진 설문조사원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조사 진행의 신뢰성과 설문내용의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3.3 데이터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8.0 for Window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도서관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학력별, 성별, 도서관 또는 홈페이지 이용횟수별, 이용하는 도서관 관공과 선호정보원 별 정보이용자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나라별로 개인적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불안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활용하였고, 학력별 도서관불안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검증을 사용하였다. 부가적

으로 통계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룹집단 간 불안감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수행한 사후검증은 학력별, 이용횟수 별 도서관 인식요인에 따른 불안감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4. 연구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본 연구에 사용된 K-LAS의 각 질문 항목들이 분석도구로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6개 요소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문항에서 0.781~0.858까지의 값으로 측정되는 등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영역별 문항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설문데이터 수집양이 가장 적었던 일본 청년층의 경우도 계수를 이용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바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K-LAS의 Cronbach 알파계수 테스트

요소	항목수 (제거수)	(제거후) 알파계수
물리적, 환경적 요소	6(0)	0.781
도서관이용 및 지식 요소	8(1)	0.858
개인과제 및 연구 요소	5(1)	0.817
디지털정보 요소	5(2)	0.779
도서관 직원 요소	4(1)	0.858
심리적, 정서적 요소	5(2)	0.818

4.2 응답자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

동아시아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국가별, 성별, 직업, 학력사항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전체 응답자 420명 중 한국 청년층 분포가 66%(277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 시작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리적 요인에 따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데이터수집의 용이성에 근거한다. 중국과 일본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경우 온라인과 우편 설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직업별 분포도는 전업학생 48.3%(203명), 취업준비생 25.7%(108명), 회사원 15.2%(64명), 자영업 7.0%(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또는 사회적 역할은 학업에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전업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총 229명 응답하여 총 전체 응답자 중 54.5%로 남성보다 높게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학사 중 또는 대학졸업 응답자가 전체 53.6%를 차지하는 225명이었고 다음이 전문대이하로 40.7%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설문자료들은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전반적인 도서관 인식을 나라별로 측정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분포

구분	항목	세부구분	빈도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가	한국	277	66.0
		중국	79	18.8
		일본	64	15.2
		합계	420	100.0
	성별	남	187	44.5
		여	229	54.5
		합계	416	99.0
		결측	4	1.0
	직업	전업학생	203	48.3
		취업준비생	108	25.7
		회사원	64	15.2
		자영업	29	7.0
		기타	13	3.1
		합계	417	99.3
	학력	결측	3	0.7
		합계	420	100.0
전문대 이하		171	40.7	
학사		225	53.6	
석사 이상		20	4.8	
합계	합계	416	99.0	
	결측	4	1.0	
	합계	420	100.0	

〈표 3〉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행태

구분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이용행태	주이용도서관	공공도서관	88	21.0
		대학도서관	283	67.4
		국가도서관	44	10.5
		전문도서관	3	0.7
		합계	418	99.5
		결측	2	0.5
		합계	420	100.0
	도서관 이용빈도	주 1회 이상	222	52.9
		월 1회 이상	120	28.6
		분기 1회 이상	51	12.1
		합계	393	93.6
		결측	27	6.4
		합계	420	100.0
		선호 정보원	책(단행본)	141
	잡지 및 신문		12	2.9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235	56.0
	친구 또는 지인		9	2.1
	기타		7	1.7
	합계		404	96.2
	결측		16	3.8
	합계		420	100.0

응답자들의 국가적 정보환경과 도서관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동아시아 청년층의 도서관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종류, 도서관 활용에 있어 이용빈도와 선호하는 정보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대학도서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대상자에 전체 67.4%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 전업 학생들과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이 대학도서관에서 공부나 취업준비를 하는 이용행태가 반영된 것이라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청년층과 대학생 이용자층이 총 88명으로 21%이고, 그 외 국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군이 전체 10.5%를 차지한다. 특별히 국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자료의 포괄성과 장소의 쾌적성 등을 이유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도서관 직접 방문과 홈페이지 활용 등 도서관 이용빈도와 이용자들의 선호 정보원에 대한 내용은 본문 통계분석에서 세부적 논의하기로 한다.

4.3 응답자의 도서관불안

동아시아 3국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전체적인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K-LAS에서 제시한 6개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도서관 불안점수의

〈표 4〉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기술통계량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물리환경	418	1.00	5.00	2.2955	.78884
도서관이용지식	418	1.00	5.00	2.3816	.80640
개인과제연구	419	1.00	5.00	2.8224	.83165
디지털정보	416	1.00	4.80	2.6514	.80453
도서관직원	418	1.00	5.00	2.6693	.94016
심리정서	418	1.00	5.00	2.2943	.82748
전체	416	1.00	4.97	2.52	.83

전체 평균은 2.52점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청년층 도서관 정보이용자들이 느끼는 각 변수별 불안점수는 개인과제와 연구 관련 도서관불안, 도서관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 순으로 높았으며 디지털정보요소도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하위영역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히 6개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변수별 각 문항에서 불안이 가장 높았던 부분은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서는 '도서관의 많은 자료실은 복잡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스럽다'(2.5599), 도서관 이용 및 지식에 관한 요인에서는 '검색결과에서 대충 가능한 책을 서가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초조해진다'(2.8619) 항목이었다. 과제와 연구에 대한 문항에서는 '도서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때때로 적합한 정보를 놓칠 것이다'(3.0429)였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느낌에 관한 요인에서는 '검색결과에 책에 대한 도움말이 없어 막막하다'(3.0429), 그리고 도서관직원에 대한 느낌부문에서는 '나는 사서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2.9809)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대한 심리적, 정서적 느낌부문에서는 '정보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고 포기하게 된

다'(2.6810) 등이었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도서관불안의 구체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이 설문문항은 도서관안내 및 배가정책 개선, 검색에 대한 이용자 친화적 교육 개발과 도서관 직원의 이미지제고 등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는 조사결과라 할 수 있겠다.

4.4 변수별 도서관불안

4.4.1 국가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
국가별로 정보이용자가 자국 도서관을 이용할 때 느끼는 도서관불안감이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전체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ANOVA분석을 하였고 Scheffe방법을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집단별 도서관불안의 차이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 중 중국의 20대 이용자가 한국과 일본의 해당집단 정보이용자층에 비해 도서관 이용시 6개의 도서관요소에 대한 모든 불안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불안에 대한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살펴

〈표 5〉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ANOVA분석

변수	국가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물리환경	한국	277	2.1992	.71696	22.401	.000**
	중국	77	2.8074	.86816		
	일본	64	2.0964	.74583		
도서관이용 지식	한국	276	2.1812	.71804	55.143	.000**
	중국	78	3.1458	.78862		
	일본	64	2.3145	.62440		
개인과제 연구	한국	277	2.6628	.78847	19.889	.000**
	중국	79	3.2911	.80371		
	일본	63	2.9365	.82213		
디지털정보	한국	277	2.4975	.79447	22.169	.000**
	중국	77	3.1506	.72414		
	일본	62	2.7194	.68373		
도서관직원	한국	276	2.5996	.92197	12.538	.000**
	중국	78	3.1186	.95663		
	일본	64	2.4219	.82960		
심리정서	한국	277	2.1458	.75706	35.849	.000**
	중국	78	2.9564	.79259		
	일본	63	2.1270	.77151		

** .p<0.01

불 때 중국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은 개인과제연구와 디지털정보요소에 관한 도서관불안요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청년층은 개인과제연구와 도서관직원에 대한 불안이 변수간 비교시 가장 높았고, 일본의 이용자들은 개인과제연구와 디지털정보에 대한 불안요소가 높았다. 각 나라의 청년층이 개인과제연구와 관련된 불안요소가 높은 것은 전체 생애주기 내에서 정규적 교육과정의 고등 단계에 해당되는 대학교육을 받고 있거나, 취업 후 새로운 정보요구와 준비가 많은 인생시점이라는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국 20대 정보이용자집단의 도서관불안요소가 각 변수별로 높은 이유는 도서관서비스 및 운영정책의 관점에서 현재 중국 도서관이 급증하는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와 기대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정보에 관한 도서관불안요소가 중국, 일본의 청년층에 비해 한국의 청년층이 낮은 분포를 나타낸 점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으로서 한국의 이용자들이 IT기술발전과 이에 대한 활용을 일상적으로 내재화하여 디지털환경과 관련 정보이용에 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도서관 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요소에 있어서는 한국의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안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따라 증가하는 도서관시설수에 비례하여 관련 인력을 적절히 수급하는 것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표 6〉 국가별 도서관불안의 Scheffe 사후검정

변수	국가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1	2
물리환경	일본	2.0964	
	한국	2.1992	
	중국		2.8074
	유의확률	.647	1.000
도서관이용지식	한국	2.1812	
	일본	2.3145	
	중국		3.1458
	유의확률	.448	1.000
개인과제연구	한국	2.6628	
	일본	2.9365	
	중국		3.2911
	유의확률	.065	1.000
디지털정보느낌	한국	2.4975	
	일본	2.7194	
	중국		3.1506
	유의확률	.148	1.000
도서관직원느낌	일본	2.4219	
	한국	2.5996	
	중국		3.1186
	유의확률	.415	1.000
심리정서	일본	2.1270	
	한국	2.1458	
	중국		2.9564
	유의확률	.986	1.000

4.4.2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불안

개인의 정보요구와 취향을 기반으로 선호하는 정보원특성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을 조사하였다. 정보원 문항과 관련하여 책(단행본), 잡지, 신문, 인터넷(블로그, 이메일 등), 지인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전통적 공식 정보원과 비공식적(인터넷검색과 인적정보 활용) 정보원 등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 불안요소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특별히 포털이나 블로그, SNS 등은 정보기

술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진화되는 일상적 정보원이지만 그 내용이나 학술인용의 신뢰성 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비공식적 정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 사람을 통한 정보획득도 습득의 편의성과 신속성에 있어 생활적으로 쉽게 활용하는 정보원이기는 하나, 객관적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비공식적 정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공식 정보원을 활용하는 정보이용자집단의 도서관불안은 특히 장소의 물리 환경적 요인, 도서관이용 및 지식, 개인과제 및 연구, 도서관

〈표 7〉 선호정보원에 따른 도서관불안

변수	정보원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물리환경	공식	161	2.1687	.80730	-2.403	.017*
	비공식	234	2.3625	.77406		
도서관이용지식	공식	161	2.2710	.77928	-2.049	.041*
	비공식	234	2.4375	.80388		
개인과제연구	공식	161	2.6174	.82565	-3.778	.000**
	비공식	235	2.9328	.80918		
디지털정보	공식	160	2.5563	.85287	-1.742	.082
	비공식	234	2.7000	.76987		
도서관직원	공식	162	2.5201	.98513	-2.371	.018*
	비공식	233	2.7489	.91400		
심리정서	공식	160	2.1800	.86328	-1.876	.061
	비공식	235	2.3387	.79850		

*.p<0.05, **.p<0.01

직원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있어 전통적 공식 정보원을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개인과제 및 연구 관련하여 도서관을 이용할 때 도서관불안은 비교대상 이용자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전업학생인 청년층 정보이용자는 대학 내 연구과제 준비나 학술공동체의 연구활동시, 자료출처인용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원을 활용해 자료조사 및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소 비공식적 정보원을 애용하는 이용자집단이 도서관의 공식적 정보원을 활용할 때 도서관 불안은 다양한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집단간 불안감의 차이를 감안하여 공식적 정보원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한 창의적인 안내와 교육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모바일기기로 인해 더욱 확산되는 비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청년이용자층의 일반적 선호경향을 반영하여, 도서관은 이용자 친화적 홈

페이지 및 모바일 정보서비스개선과 새로운 정보탐색을 위한 창조적 공간제시 등 개인의 정보세계와 정보요구를 풍요롭게 키워줄 수 있는 가상 또는 실제적 공간 환경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4.4.3 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도서관 및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빈도에 따른 국가별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용 빈도와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등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른 6가지 요인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물리적·도서관환경, 도서관이용 및 지식, 개인과제 및 연구, 디지털정보, 심리·정서적 요인 등 총 5가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인 5가지 요인에 대해 이들 간의 차이를 Scheffe 사후 검증을 통해 재확인한

〈표 8〉 도서관 방문빈도에 따른 도서관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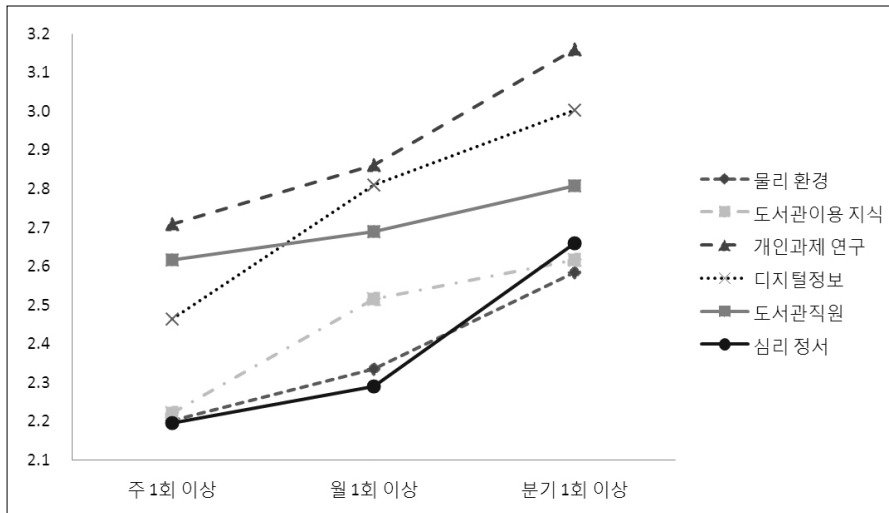
종속변수	학력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물리환경	주 1회 이상	221	2.2029	.75859	5.191	.006**
	월 1회 이상	119	2.3361	.82081		
	분기 1회 이상	51	2.5850	.79678		
	합계	391	2.2933	.79131		
도서관이용 지식	주 1회 이상	221	2.2206	.78116	8.614	.000**
	월 1회 이상	119	2.5158	.79932		
	분기 1회 이상	51	2.6176	.75267		
	합계	391	2.3622	.79828		
개인과제 연구	주 1회 이상	222	2.7090	.86929	6.658	.001**
	월 1회 이상	119	2.8605	.77353		
	분기 1회 이상	51	3.1608	.64127		
	합계	392	2.8138	.82636		
디지털정보	주 1회 이상	221	2.4633	.80835	13.862	.000**
	월 1회 이상	119	2.8101	.76040		
	분기 1회 이상	51	3.0039	.73810		
	합계	391	2.6394	.81069		
도서관직원	주 1회 이상	220	2.6170	.96526	.908	.404
	월 1회 이상	120	2.6896	.92184		
	분기 1회 이상	51	2.8088	.93753		
	합계	391	2.6643	.94835		
심리정서	주 1회 이상	221	2.1946	.81014	6.546	.002**
	월 1회 이상	120	2.2900	.84649		
	분기 1회 이상	50	2.6600	.81240		
	합계	391	2.2834	.83335		

** .p<0.01

결과, 5가지 영역 모두 분기 1회 이상 이용하는 청년이용자집단의 경우 가장 불안감이 높았고,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청년집단이 그 다음, 그리고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이 도서관불안감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도서관불안과 이용횟수는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직원’요소에서는 이용빈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직접이용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도서관 이용빈도 별 동아시아 청년층

이용자집단의 도서관불안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특히 도서관 이용방문횟수는 장소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쾌적성과 편안함이 보유되는 등 공간적 매력이 배가되어야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층 정보이용자집단은 도서관을 전통적 자료검색 및 정보이용 이외 요소로도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20대 청년층 이용자에게 있어 전통적 정보찾기의 우선적 장소가 도



〈그림 1〉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른 도서관 불안

서관이 아닐 수 있다면,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획득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와 관련된 새로운 차원의 쾌적한 정보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 지칭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미국 아이다호 도서관의 미래 이용자서비스 연구보고서와도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Rothstein and Schull 2010). 이 보고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발견하고, 배움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질문하고, 논쟁하고, 영감을 받는 것 이외에도 만나고, 꿈꾸고, 커피마시고, 이웃을 보고, 성장하고, 논쟁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만들고,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과 사귀고, 놀고, 생각을 키워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과거와 만나고 미래와 소통하는 공간이 이용자들이 꿈꾸는 도서관에 대한 기대이자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

4.4.4 학력 및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동아시아 대도시에 거주하며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교육수준에 따라 도서관 불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재학, 수료자포함) 등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각각의 이용자 집단을 전문대졸 이하, 학사, 석사 이상 등 3가지 집단으로 대구분하여 불안요소에 대한 각 집단별 도서관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에 학력별 도서관불안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검증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한중일 청년층의 교육수준에 따른 도서관 불안은 개인과제와 연구요인에서 석사이상 정보이용자들의 불안감이 3.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집단의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하부요소 분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으로

이용자집단을 구분하여 도서관불안요소를 측정할 경우 상이한 학력 집단 간 평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이 연구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동아시아 청년층 전체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하부요소의 차이점 분석의 결과, 모든 하위변수에서 대상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용자집단의 성별차이에 따른 정보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Case 2012)는 학술적 연구결과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도서관 불안감의 차이보다는 개인적 정보세계와 상황 등 정보적 맥락이 도서관인식의 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동아시아 대표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대도시지역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별 도서관 인식차이와 각 요인별 도서관불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른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 청년 정보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의 전체 평균은 2.52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 정보이용자가 느끼는 각 변수별 불안은 개인과제와 연구 관련, 도서관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 순으로 높았다. 이들 나라 중 특히 중국의 청년 정보이용자층이 한국과 일본의 정보이용자층에 비해 도서관정보 이용시 모든 도서관요소에 대한 불안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과 관계없이 비공식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은 전통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집단에 비해 물리 환경적 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 개인과제 및 연구, 도서관직원과의 상호작용 영역에 있어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개인과제 및 연구와 관련된 도서관 이용시 불안정도는 비교대상 집단보다 현격하게 높았다.

셋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빈도와 도서관불안은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도서관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서관자체가 장소적 관점에서 쾌적성과 편안함이 보유되는 등 공간적 매력 있다면 친밀성이 높아져 이용이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을 보였다. 장소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은 도서관을 자료검색 및 정보이용이외에도 미팅이나 지적 휴식 장소로서 활용하는 등 다른 차원에서도 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넷째, 동아시아 청년층의 학력수준이나 성별 요인과 관련된 도서관불안요소 조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력수준, 성별차이 등 전통적 인구통계학적 구분보다는 개인의 정보 환경과 일상적 정보맥락이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특히 한국의 이용자들에 관해서는 디지털

정보에 관한 도서관불안요소가 다른 나라 청년층에 비해 낮은 분포를 나타낸 점 등은 국내의 진화된 정보기술 환경을 일상적으로 내재화하여 디지털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한국적 상황이 반영된 부분이라 하겠다. 반면에 도서관 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요소에 대해 한국의 청년층 정보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사서의 사회적 이미지제고 및 서비스내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1986년 Mellon의 연구 이후 꾸준히해 진행되어온 도서관 불안이라는 연구주제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불안을 포함한 이용자의 도서관인식에 관한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와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개인차이, 정보환경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도서관불안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도서관불안척도와 함께 개인적 정보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이용자의 선호정보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찰과 추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생활권 여가 인프라로서 도서관이 시민의 생활속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이용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수용 및 정보소통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장소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용자들이 도서관이라는 정보환경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적 탐색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적 공간 창출 및 신속하고 유용한 정보서비스의 제안 등을 통해 성인 시작기의 이용자들의

평생학습에 기반이 되는 도서관이라는 정보탐색환경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셋째, 모바일 등 보다 가볍고 일상생활에 밀착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넷기기를 통한 정보이용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정보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새로운 도서관서비스의 영역개발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 등이 요구된다. 즉 인터넷환경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장소적 기반 마련 및 정밀한 정보이용 행태분석에 기반한 모바일서비스와 홈페이지인터페이스개선 제안 등 넓은 영역의 성인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정책의제로서 노령사회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영역으로 성인층의 단계별 삶과 더불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주목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지구촌시대는 각 나라의 국가경쟁력강화를 넘어 지구촌을 세계 시민이 사는 공동의 공간으로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 양성과 초국가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기반 마련 및 성인교육과 학습의 장으로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지식정보인프라이자 문화교육기관인 도서관의 사회적 활용을 도모하며, 동아시아지역 국가의 정책적·학술 연구적 관심속에 도서관 협력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추후 보편적 역사 이해속에 보다 깊은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동아시아 지역 성인교육의 주요 거점이자 기반시설이 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이용자연구와 연결하여 새롭게 접목시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C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13-328.
- [2]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 [3] 박주범, 정동열. 2010.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353-371.
- [4] 박현영, 남태우. 2006. 도서관 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99-120.
- [5] 박형준. 2014.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공진국가 구상』. 서울: 메디치미디어.
- [6] 오선혜, 이성숙. 2012.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57-276.
- [7] 오의경. 2011. 정보활용능력 인지수준과 도서관불안간의 관계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23-137.
- [8]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09-327.
- [9] 정종기. 2014.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노출경험이 도서관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신입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271-296.
- [10] 최운실, 이희수, 변종인. 2003.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 모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9(3): 299-325.
- [11] 통계청. 2014. 『인구추계 2014』. 대전: 통계청. [online] [cited 2015, 6. 30.] <<http://kosis.kr>>
- [12] Aspray, W. and Hayers, B. M. 2011. *Everyday Information: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Seeking in America*. New York: MIT Press.
- [13] Rimmer, S. 2007.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in Longevity and Social Change in Australia*. Borowski, A., Encel, S., Ozanne, E. ed. Sydney: UNSW Press.
- [14]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Ph.D. diss., The Graduate School of Wayne State University.
- [15] Case, D. O. 201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 and Behavior*. Bingley, UK: Emerald.
- [16] Fulton, C. and Vondracek, R. 2009. "Introduction: Pleasurable Pursuits: Leisure and LIS Research." *Library Trends*, 57(4): 611-617.
- [17] Jiao, Q. G. and Onwuebuozie, A. J. 1998. "Perfectionism and library anxiety among graduate

-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4(5): 365-371.
- [18] Jiao, Q. G. and Onwuebuze, A. J. 2001.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 *Urban Library Journal*, 11(2001): 16-27.
- [19]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0] Mi, J. and Nesta, F. 2006. “Marketing library services to the Net generation.” *Library Management*, 27(6/7): 411-422.
- [21]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7(2): 160-165.
- [22] Mentis, H. M. 2007. “Memory of Frustrating Experience.” *Information and Emotion: The Emergent Affective Paradigm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and Theory*, 197-210.
- [2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Life satisfaction: ‘how happy you are’*. paris, Fra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line] [cited 2015. 6. 20.]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24]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1.” *On the Horizon*, 19(5): 1-6.
- [25] Rothstein, P. and Schull, D. D. 2010. *Boomers and Beyond*.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26]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 259-294.
- [27] Stebbins, R. A. 2001. *New Directions in the Theory and Research of Serious Leisure*. New York: Edwin Mellen Press.
- [28] Tapscott, D. 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McGraw-Hill.
- [29] Van Kampen, D. J. 2004. “Development of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Jan: 28-34.
- [30] Weiler, A. 2005. “Information-seeking behavior in Generation Y students: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theor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1): 46-53.
- [31] Young, N. J. and Seggern, M. V. 2001. “General information seeking in changing times: a focus group study.”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41(2): 159-16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Nam, Young-Joon, Kim, Gyu-Hwan and Choi, Sung-Eun. 2010. “A Research on library anxiety

-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13-328.
- [2] Nam, Tae-Woo and Park, Hyun-Young. 2006. “A Study on library anxiety of domestic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151-168.
- [3] Park, Joo-Bum and Jeong, Dong-Youl.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353-371.
- [4] Park, Hyun-Young and Nam, Tae-Woo.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xiety sca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99-120.
- [5] Park, Heong-Joon. 2014. *How Can We Change Korean Society in What Way?: Co-evolutionary State*. Seoul: Medichmedia.
- [6] Oh, Sun-Hye and Lee, Sung-Sook. 2012.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senior us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olog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57-276.
- [7] Oh, Eui-Kyung. 2011.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gnition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and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123-137.
- [8] Jang, Bo-seong, Kim, Eun-jeong and Nam, Young-joon. 2010. “Measurement and analysis of library anxiety among library handicapped us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309-327.
- [9] Jung, Hong-Kee. 2014. “A Study on the impact of library exposure experience to freshmen’s academic library anxiety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271-296.
- [10] Choi, Un-Sil, Lee, Hee-Su and Byun, Jong-Im. 2003. “A Study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Model by Life-cy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felong Education*, 9(3): 299-325.
- [11] Statistics Korea. 2014. *estimated population 2014*. Daejeon: Statistics Korea. [online] [cited 2015. 6. 30.] <<http://kosis.kr>>